

## 소방방재청, 첫 보고 목살 '40분' 날렸다

세월호 침몰 신고 받고도 시·도 본부에 누장 조치 소방헬기 배 전복 뒤 현장 도착 구조활동 아예 참여 못해

국가 재난발생시 전국 소방본부의 컨트를 타워 역할을 하는 소방방재청이 '세월호 침몰' 당일 첫 사고 신고(오전 8시52분)를 받고도 40여분간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아무런 지령(조치)도 내리지 않은 채 골든타임을 허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광주시소방본부 등 전국 소방헬기가 누장 출동했고, 세월호가 완전히 전복되고서야 현장에 도착하는 바람에 구조활동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

광주에서 진도까지 30분 안팎이면 소방헬기가 도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방방재청이 출동지령만 빨리했다더라면 '세월호 완전침몰' 1시간전이자 첫 구조경비정 도착시간인 오전 9시30분을 전후해 현장 도착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여 누장 지령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전남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남도소방본부는 지난 16일 오전 8시52분고 최척하군(단원고)으로부터 처음으로 세월호 침몰 신고 전화를 받고 곧바로 소방방재청에 내용을 보고한 뒤 후조 조치에 대한 지령을 기다렸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은 이후 30분이 넘도록 지령을 내리지 않았고, 사고 현장의 심각성을 파악한 전남도소방본부는 오전 9시35분께 자체적으로 광주 등 전국 소방본부에 소방헬기 지원 요청을 했다.

전남도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소방방재청에 사고 소식을 전했으나 별다른 지시가 없어 자체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조 요청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실제 광주시소방본부도 세월호 침몰 당일인 16일 오전 9시35분 전남도소방본부의 협조 요청을 받기 전까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어떠한 지령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탑승 476명	구조 174명
실종 90명	사망 212명
※ 4월 30일 오후 8시 현재	

▶세월호 관련기사 2·3·4·5·10면



살아남은 친구들의 조문 입원치료를 마친 세월호 생존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지난 3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아 먼저 떠난 친구와 스승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전 9시35분에 전남도소방본부에서 협조 요청이 왔으며, 그 후 (수 초가 지난 뒤)소방방재청에서도 출동 지령이 왔다"면서 "지령에 따라 (16일) 오전 9시40분께 소방헬기를 광주공항에서 이륙시켰다"고 밝혔다.

누장 지령 탓에 누장 출동한 광주시소방헬기는 그나마도 현장으로 직행하지 못하고, 고위간부를 태우기 위해 전남도청을 경유하는 바람에 현장 도착이 또 한번 지연되기도 했다. <광주일보 4월 30일자 1면>

뒤늦은 지원 요청으로 동원된 전국의 소방헬기들도 세월호가 사실상 완전 전복된 오전 10시31분을 전후해 도착하는 바람에 진도 팽목항 등에 대기하다 귀환해야 했다. 구조는커녕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해준 고가의 연료만 낭비한 꼴이 된 것이다.

소방방재청이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 단원고 학생 등 300여명은 바닷속 선실에서 구조 헬기만 에타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동영상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전 국민의 분노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당시 현장의 특수성 때문에 해양경찰이 구조작업을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119구조대들이 소방헬기에 탑승한 뒤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 선체 내부로 진입하는 등 구조활동을 했더라면 좀 더 많은 승객을 살릴 수 있지않았겠느냐는 게 구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편 이날 누장지령과 관련, 소방방재청에 수차례 해명을 요청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새정치, 전남 기초長 일부 전략공천

새정치민주연합의 호남지역에 대한 공천 작업이 곳곳에서 지연되면서 기초단체장 후보에 대한 전략공천 폭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30일 "공천 작업이 늦어지면 경선이 사실상 어려워지거나 경선 과정의 불미스러운 일로 경선이 무효가 되거나 일정이 중지되는 지역이 나올 수 있어 전략공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며 "그동안 당의 분위기로 볼 때 광주에서는 전략공천을 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전남의 경우 몇몇 곳에서 전략공천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우선 그동안의 관례로 볼 때 현역 단체장이 공천 배제된 지역이 우선적 전략공천 대상지역으로 된다는 점으로 봐서 광주 서구와 나주, 곡성 등을 주시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C-Class 36개월 무이자 할부 062)226-0001

하지만, 광주 서구의 경우 후보가 난립한 상황이어서 컷오프 후 경선을 치르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곡성의 경우도 단수후보가 남아 전략공천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나주도 후보가 난립한 상황이어서 컷오프 후 경선이 예상되지만 민주계와 새정치연합계가 합의를 이룰 경우 전략공천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또 전남에서 정밀심사대상 지역에 5명의 현역 단체장이 포함되면서 전략공천의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정밀심사대상 현역 단체장이 모두 민주계에서 민주계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따라서, 새정치연합계에서는 명분이 약한 전략공천보다는 현직 단체장에 대한 공천 배제를 강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C-Class 36개월 무이자 할부 062)226-0001

## 62

SINCE 1952

24면으로 증면·서체 변경

새로운 광주일보를 만나세요

정확한 보도, 균형잡힌 논평으로 지역민의 사랑을 받아온 광주일보가 창사 62주년을 맞아 더욱 알차고 새로워집니다.

다양한 정보와 읽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면수를 기존 매일 20면에서 24면으로 늘리는 증면을 단행했습니다. 신문 제목과 본문의 서체를 키우고 판형도 기존 7단에서 6단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전통과 권위의 호남 제일 종합일간지로 서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온 광주일보는 이와 함께 다양한 기획특집과 지면 채신으로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4개 면 늘려 ... 지역·문화 뉴스 강화합니다

### I 전남 Inside

독자의 다양한 정보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1일부터 기존 하루 20면 발행하던 것을 24면으로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주당 발행면수도 100페이지에서 120페이지로 증가해 호남지역 일간지 가운데서는 가장 많은 지면을 발행하게 됩니다. 전남지역 시·군 구석구석의 뉴스와 이슈를 생생하게 전함으로써 지역 밀착형 보도를 강화하는 '전남 인사이트'를 신설해 지방면을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문화 소식도 매일 2개면으로 확대했습니다. 광주시민들의 일상과 자치구 소식을 담은 '시티&라이프'는 주 3회, 국제면은 주 2회 발행합니다.

활자 키워 선명도 높이고 판형도 바꿔 ... 눈이 즐겁습니다

### 광주 기존 활자

눈의 피로도를 한층 덜어 더 보기 좋고 읽기 쉽도록 새로운 서체를 도입했습니다.

### 광주 바뀐 활자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본문의 활자는 글꼴의 세련미와 간결성에 주안점을 두고 개선해 선명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제목 활자 또한 서체 굵기 및 획을 조절해 가독성과 통일성을 높였습니다. 판형은 6단 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지면의 좌우 여백을 넓혀 기존 7단 체제보다 낱말하고 시원한 지면을 선사합니다. 이에 따라 독자 여러분은 종전보다 세련된 편집의 지면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광주·전남' 캠페인 전개합니다

### U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등을 비롯한 대형 국제행사과 아시아문화전당·호남선KTX·나주혁신도시 등 광주·전남 3대 역사(役事)의 완공을 앞두고 시민의식과 광주·전남 위상 제고를 위한 '업그레이드 광주·전남'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진정 국제시민' '선진 민주주민' '풍요로운 남도' 등을 주제로 한 캠페인에는 (사)호남미래포럼과 광주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 광주시, 전남도가 함께 합니다.

다양한 국내외 기획특집 ... 신문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 World

옛 전남도청 이전으로 공동화현상이 심각한 광주 구도심 일대의 재산을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모색하는 '도시재생, 문화가 해법이다'를 창사특집으로 시작합니다. 대규모 철거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삶이 어우러진 국내외 선진 도시재생 사례를 소개합니다.

5·18 34주년을 맞아 광주 정신의 세계화를 위한 기획특집 '5월 정신 세계 민주·인권운동 이끈다'를 비롯한 '관광형 쇼핑명소가 지역경제 희망이다' '슬픈 동물원' 등 새로운 기획물들이 특집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LIRIKOS**

MARINE COLLAGEN V AMPOULE

ANTI-WRINKLE SPECIAL PROGRAM

## 마린콜라겐으로 팍 차오르는 피부- 고농축 탄력 앰플

### 리리코스 마린콜라겐 V 앰플

주름만큼이나 심각한 피부노화의 징조는 바로 탄력저하- 리리코스 마린콜라겐 V 앰플은 농축하고 농축한 입도적 함량의 마린콜라겐이 무너진 피부에 힘있는 탄력을 채워드립니다

\*리리코스는 카운셀링 전문 세뽀로 피부이력 및 주요 백반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간접지 분포: (주)리리코스, 080-023-5454 www.lirikos.co.kr www.facebook.com/lirikos.kr